

신라 현신성불(現身成佛)의 밀교적 영향

Esoteric Influence for Accomplishing Buddhahood of Present Body in Silla Dynasty

저자 (Authors)	서윤길 Yoon Kil Suh
출처 (Source)	불교학보 42 , 2005.2, 7-17 (11 pages) BUL GYO HAK BO 42 , 2005.2, 7-17 (11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3356
APA Style	서윤길 (2005). 신라 현신성불(現身成佛)의 밀교적 영향. 불교학보, 42, 7-1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5 14:3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 現身成佛의 密敎的 영향

서 윤 길*

- I. 머리말
- II. 新羅人의 現身成佛
- III. 密敎의 卽身成佛 思想
- IV. 8세기 新羅의 密敎信仰
- V. 맺음말

● 한글요약

現身成佛사상은 중생이 현실의 몸 그대로 성불을 이룬다는 뜻으로 밀교의 卽身成佛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신성불 사상은 대승불교사상을 기초로 성립된 것으로 요약하면 중생의 현실세계가 佛智에 의해 관조할 때 곧 청정한 부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眞言門의 수행자가 중생의 몸을 버리지 않고 살아있는 몸 그대로 성불할 수 있음을 설한 것이다. 밀교는 7세기 중엽 『대일경』과 『금강정경』 등의 성립을 계기로 그 교리와 수법이 체계화되었으며, 중국에서 밀교가 크게 유행할 때 신라의 많은 스님들이 당나라에 유학하여 밀교를 연구하였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密本, 慧通 등의 밀교승에 의해 불교가 한반도에 유입될 당시 불교를 治病과 護國, 安民 등의 영험있는 종교로서 한반도에 소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이후 신라불교에는 『藥師經』과 『無垢淨光陀羅尼經』 등의 밀교경전의 존재와 함께 밀교가 크게 유행하였다. 신라의 현신성불사상에 대해 밀교의 즉신성불사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실을 전하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두 사상간의 교감을 추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삼국유사』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 남아있다. 신라의 현신성불사상은 즉신성불사상에서 한 걸음 나아가 현실세계의 중생과 살아있는 불보살이 함께 어우러져 중생을 구호하고 불국토를 실현하는 활달한 신라불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 주제어

卽身成佛, 現身成佛, 新羅佛敎, 密敎, 三國遺事, 佛敎, 大日經, 金剛頂經, 神印, 灌頂經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I. 머리말

新羅는 3국 중에서 가장 늦게 불교를 수용하였다. 法興王 14년(527)경에 처음으로 불교를 받아들였으니, 고구려나 백제에 비하면 150여 년이나 늦은 셈이다.

이처럼 삼국 중에서 제일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던 신라였지만 그 교학사상이나 신앙의 전개면에 있어서는 가장 특성있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다른 나라의 종교가 아닌 신라적인 신앙으로서의 이념을 정립시켰고 신라가 바로 부처님의 나라요 부처님의 땅이라는 사상과 불교의 현실적 응용은 물론 미래지향 적인 믿음도 발전시켜 나갔다.¹⁾ 그리하여 신라불교는 마침내 신라사람이 미타불이 되고 미륵불이 되는 現身成佛로 까지 승화하게 되었다.²⁾

이 글을 쓰게 되는 동기는 신라 사람이 부처님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거나 설화이거나 상관없이 그것이 불교의 어떠한 교학사상에서 연유했는가를 밝혀 보려는 데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佛像(生身如來)觀이 더욱 창의적으로 발전되고 신라를 부처님의 나라로 이룩하려는 신라 특유의 信佛思想에서 나온 필연적 결과였다.”³⁾는 선학의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견해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신라 사람으로써 現身成佛을 하게 되는 데는 밀교의 卽身成佛思想이나, 그러한 신앙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가설적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목차가 제시한 바와 같이 신라인의 성불사례와 밀교의 즉신성불사상을 밝히고, 그러한 밀교사상이나 신앙이 당시 신라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앞에서와 같은 가설적 생각에 대한 근접한 해답을 얻으려고 한다.

II. 新羅人의 現身成佛

『三國遺事』에는 향전의 기록에 의해 신라사람으로서 부처를 이루어 現身한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본 논제와 관련된 부분만을 간추려 소개하려고 한다.

신라 땅 仇史郡(오늘의 경남 창원이다.)의 북쪽에 白月山이 있었고 그 산 아래에 仙川村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 努朕夫得(부친의 이름이 月藏이고 모친은

1) 김영태, 『삼국시대 불교신앙연구』, (서울 불광출판부, 1990), pp.150~164, pp.399~413 參照.

2) 『三國遺事』 卷3, 塔像4, 南白月二聖努朕夫得相似朴朴條 參照.

3) 金煥泰, 「新羅佛敎의 現身成佛觀」, 『新羅文化』제1집(東大 新羅文化研究所), p.11.

味勝이었다.)과 恒恒朴朴(부친의 이름이 修梵이고, 모친은 梵摩였다)이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다.⁴⁾ 이들은 弱冠의 나이에 그 마을 동북쪽 고개 너머에 있는 法積房으로 가서 함께 출가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치산촌 법종계곡의 승도촌에 옛 절이 있어 옮겨 살만하다는 말을 듣고 그곳 대불전과 소불전으로 가서 夫得은 懷眞庵에 朴朴은 琉璃光寺에서 처자를 거느리고 산업을 경영하면서 살았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출세간적 생각(方外之志)을 잠시도 잊어 본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육신과 세상살이가 무상함을 觀하고 함께 白月山の 무등계곡으로 들어가 朴朴은 북쪽고개의 사자암에 板屋을 짓고 살면서 阿彌陀佛을 禮念하였으며 夫得은 동쪽고개의 들무덕 밑에 방 한칸을 짓고 살면서 彌勒佛을 勤求하며 정진하였다.

이렇게 정진을 시작하고 3년이 채 못되는 聖德王 8년(709) 4월 8일의 석양이었다. 20대의 한 예쁜 娘子가 북쪽 암자에 찾아와 목고 가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박박은 “절이란 깨끗함을 위주로 함으로 네가 가까이 할 곳이 못된다.”고 거절해 버렸다. 그 남자는 다시 남쪽암자로 찾아가 똑같은 요청을 하였다. 부득은 “이 땅은 부녀자들로서 더럽힐 곳이 못되지만 중생의 뜻에 수순하는 것도 보살행의 하나다.”고 하면서 받아들였다.

그런데 밤이 되어 남자가 해산기가 있으니 도와주고 다시 해산 후 목욕까지 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에 부득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 물을 데워 목욕을 시켰다. 그랬더니 그 목욕물이 금빛으로 변하고 남자가 부득에게도 목욕하기를 권했다. 시키는대로 했더니 부득의 몸도 금빛으로 변하고 옆에는 연화좌대도 생겼다. 남자가 부득을 연화대에 앉으라고 권하면서 “나는 관음보살인데 大師가 큰 보리를 성취하도록 와서 도운 것이오”하고 사라졌다.⁵⁾

다음날 부득이 파계했을 것이므로 돌려주려고 찾아온 박박도 남은 물에 목욕하게 하여 무량수불이 되었다. 이 두 부처님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모여들어 찬탄하는 마을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는 온 몸이 구름에 싸여 사라져 버렸다.

신라 경덕왕이 즉위하여 이러한 말을 듣고 天寶14년(755)에 절을 지어 미륵부처님을 조성하여 모시고 현판에다 “現身成道彌勒之殿”이라하였고, 또 “現身成道無量壽殿”이라 하였다.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유사』에서는 신라시대 사람으로서 現身成佛한 두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점에 대하여

4) 이 두 사람의 부모이름은 각각 『佛說彌勒下生經』과 『阿彌陀鼓音聲王陀羅尼經』에 있는 미타, 미륵의 부모이름과 같다(上揭稿, p.107).

5) 『阿彌陀鼓音聲王陀羅尼經』과 『妙法蓮華經』卷7 「觀世音菩薩普門品」에는 중생이成佛할 자에게는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돕는다고 하였다.(上揭稿, P.107, 참조).

6) 앞의 註2) 참조.

불교의 여러 사상 중에서 그 가능한 배경이 될 수 있는 신앙사상을 살펴해보려고 한다.

Ⅲ. 密敎의 卽身成佛思想

앞에서 우리는 신라시대 신라사람으로써 現生에서 미륵불과 아미타불이 된 夫得과 朴朴의 경우를 대략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러한 現身成佛이 밀교사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밀교는 원래 A.D.7C 초입 대승불교의 마지막 시대에 형성된 것이므로, 그 교학체계는 자연히 현교의 것을 계승하면서 더욱 발전시킨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범부에서 佛에 이르는 수행계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생이 성불에 이르기까지는 三大阿僧祇劫을 거치면서 52 단계를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법화경』에서는 다시 “한 四天下의 미진수보살마하살이 있어 일생에 마땅히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증득한다”⁷⁾라고 하여 一生成佛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일생성불은 그 전후 내용이나 표현상으로 보아 現身成佛이나 卽身成佛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일생성불이 일반 범부가 아닌 보살의 경우이며,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밀교의 즉신성불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二乘이하의 범부가 즉신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眞言行菩薩⁸⁾이라는 전제가 따르고 있다. 不空(705-774)이 번역한 『金剛頂瑜伽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論』에서

오직 眞言法 중에서만 卽身成佛하기 때문에 이 三摩地法을 설하며 다른 모든 가르침 중에는 이에 관하여 빼먹고 말하지 않았다⁹⁾

라는 내용을 근거로 현교에는 그러한 사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예도 있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빼먹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밀교의 즉신성불사상은 법화경의 一生成佛思想과 같은 교학을 이으면서 더욱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사상으로 발전시켰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다. 『大日經疏』에서도 이와 유사한 一生成佛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어떻든 그 사상적 원류야 현교에 있었다 할지라도 卽身成佛思想은 밀교에 이르

7) 『妙法蓮華經』卷5, 「分別功德品」(『大正藏』9, p.44a), “復有 四天下微塵數菩薩摩訶薩 一生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8) 『大毘盧遮那成佛經疏』卷1(『大正藏』39, p.584a).

9) 『金剛頂瑜伽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論』(『大正藏』32, p.572c), “唯眞言法中 卽身成佛故 是故說三摩地於諸敎中 闕而不言”.

10) 『大日經疏』(『大正藏』39, p.600c) 참조.

러서 보다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의 목표가 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밀교사상의 핵심적 교학체계를 담고 있는 『大日經』에서 “초발심 내지 十地次第를 이생에서 만족한다”¹¹⁾ 든가, “이 몸을 버리지 않고 속히 神境通을 체득하며 大空位에 유보하여 身秘密을 성취한다”¹²⁾는 뜻은 밀교가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현신)을 가지고 곧바로(即身)성불할 수 있는 즉신성불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밀교가 즉신성불의 길을 열어 보였다 할지라도 누구나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예시했던 『법화경』의 보살들의 경우도 一生成佛 二生成佛등의 차별이 있듯이¹³⁾ 밀교의 즉신성불도 그 실현 가능자와 불가능자의 구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수행공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밀교가 十界의 모두를 구제와 수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두가 즉신성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밀교는 菩薩地(그 중에서도 제8지)부터를 기초로 하여 출발하고 있다.¹⁴⁾ 따라서 『대일경』에서 열어 보인 즉신성불도 보살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이하의 범부중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大日經疏』에서

지금의 이 眞言門菩薩이 만약 법칙을 어기지 않고 方便을 수행한다면 이 생에서 무진장업의 가지경계를 보게되며 現前하는데 그치지 않고 佛地를 뛰어 넘어 大日如來와 같아 지려고 하면 또한 거기에도 이를 수 있다.¹⁵⁾

고 하여, 즉신성불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도 그 전제를 반드시 “밀교를 수행하는 보살”이라고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살은 또 어떻게 하여 즉신성불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밀교적 즉신성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多生에서 一生으로, 多劫에서 卽身으로의 時間的 단축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대일경소』에서는

범어의 劫跋¹⁶⁾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時分이고 하나는 妄執이다. 일반적 해석으로는 3아승지겁을 지나 정각을 이룬다고 하는데, 밀교적 해석으로는 1겁을 초월하는 유가행은 곧 160心 등 麤妄執을 벗는 것이므로 一阿僧祇劫이라한다. 2겁을 초월하는 유가행은 또 160心 등 細妄執을 벗는 것이므로 2아승지겁이라한다. 진언행자가 다시 1겁을

11) 『大日經』卷1, 「人眞言門住心品」(『大正藏』18, p.1b).

12) 『大日經』卷3, 「悉地出現品」(『大正藏』18, p.21a).

13) 앞의 註 7) 참조.

14) 徐閔吉, 「密敎의 敎學的 位相과 그 特性」, 『韓國佛敎學』제20집, pp.277~296.

15) 『大日經疏』(『大正藏』39, p.584a). “今此眞言門菩薩 若能不虧法則方便修行 乃至於此生中逮見無盡莊嚴 加持境界 非但現前而已 若欲超昇佛地即同大日如來 亦可致也”.

16) 劫跋은 kalpa의 한역이다.

초월하며 160心등의 極細妄執을 벗으면, 佛慧의 초심에 이르게 되므로 3아승지겁 성불이라 한다. 만약 一生에 이 3망집을 벗으면 곧 一生에 성불하므로 어찌 시간을 논하겠는가?¹⁷⁾

라고 한 바와 같이 밀교에서는 시간개념을 妄執의 질량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서도 밀교의 즉신성불사상이 법화의 一生成佛의 그것을 잇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거니와 종래의 3대 아승지겁을 지나면서 52위의 단계를 넘어야 가능했던 성불이 밀교에 와서는 추·세·극세의 三重妄執을 타파하면, 多生 多劫을 거치지 않고 一生成佛, 곧 즉신성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라의 현신성불과 관계하여 두 성인이 성불했던 8세기 경에는 밀교의 즉신성불사상이 더욱 구체적인 교학사상으로 또는 보편적인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Guhyāsamāja-tantra*에서는 대일여래의 다섯 가지 지혜를 상징하는 5불이 5온과 동일시 되었는데, 이것은 法界 자체인 5불과 5온의 복합체인 인간이 모두 5온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대우주로서의 佛과 소우주로서의 자기가 모두 5온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즉신성불의 가능성을 보이려한 것이다.¹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밀교에는 보살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과 여러 생을 기다리지 않고도 성불하는 법을 제시하였다. 밀교적 수행을 하는 보살은 추나 세 또는 극세의 망집을 타파만 할 수 있다면 一生 또는 부모로부터 전해 받은 현재의 이 몸으로 부처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를 일러 一生成佛 또는 現身成佛이나 卽身成佛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밀교의 즉신성불사상과 신라의 현신성불이 어떠한 상관성을 갖고 있을까. 다음 장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IV. 8세기 新羅의 密敎信仰

신라에 밀교가 최초로 알려지게 된 것은 서역의 승려들에 의해서였다. 신라 진평왕 27년(AD 605)에 서역의 승려인 북천축오장국(Udyana)의 毘摩羅眞諦(Vimala-cinti)등이 황룡사에 와 머물면서 밀교 경전인 『梅檀香火星光妙女經』을 번역해 유포케 된 것이 그 처음이다.¹⁹⁾ 물론 이 때에 전해진 것은 인도 초기 밀교에 해당하

17) 『大日經疏』(『大正藏』39, p.600c), “梵云劫跋有二義 一者時分 二者妄執 若依常途 解釋 度三阿僧祇劫 得成正覺 若祕密釋 超一劫瑜祇行 卽度百六十心等 一重巖妄執 名一阿僧祇劫 超二劫瑜祇行 又度一百六十心等 一重細妄執 名二阿僧祇劫 眞言門行者 復越一劫 更度百六十心等 一重極細妄執 得至佛慧初心 故云三阿僧祇劫成佛也 若一生度此三妄執 則一生成佛 何論時分耶”

18) 平川彰, 『インド佛敎史』下(東京, 春秋社, 1981), p.383 참조.

19) 徐閔吉, 『韓國密敎思想史研究』(불광출판부 1994) P.12, 참조.

는 것이지만, 그 뒤를 이어 明朗·密本·惠通 등의 밀교 승려들이 나타나 같은 초기 밀교사상을 수용하게 된다.

명량은 서기 632년에서 635년 사이에 唐나라에 들어가 유학을 하면서 밀교를 어떻게 공부하였는가는 알 수 없으나, 신라로 귀국 한 뒤에는 자신의 집을 회사하여 金光寺를 세웠고, 밀교의 의례인 神印秘法으로써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도 하였다.

원래 신인비법은 文豆婁法(Mūdra)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灌頂經』 12권 중의 일곱 번째인 『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²⁰⁾의 사상과 그 교법에서 연유한 것이다. 명량은 이러한 비법에 의해서 문무왕 10년(AD 670) 당나라 장수 설나가 50만 원정군을 이끌고 정주해상에 침입했을 때와, 이듬해 조현 장군이 이끄는 5만의 군사가 침입했을 때, 각각 신인비법을 설행하여 그들을 물리치게 되었다.²¹⁾

일본에 관해서는 선덕여왕(632~646 在位) 시대에 활동했다는 정도 외에는 그 자세한 전기를 알 수 없으나, 밀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선덕여왕이 병이 든지 오래되어 흥륜사의 승려인 法揚이 불려와 진료를 맡았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그리하여 당시에 밀교승려로서 덕행이 높았던 眞本法師가 불려와 왕의 침실 밖에서 『藥師經』을 독송하였다. 경을 다 읽자마자 스님이 가졌던 육환장이 침실로 날아들어 늪은 여우 한 마리와 법척을 찢어 뜯아 아래로 넘어뜨렸다. 그러자 왕의 병은 곧 나았다.

또 승상 銀闔가 어렸을 때 입이 불고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렸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큰 귀신이 작은 귀신들을 거느리고 와서 집안의 음식물을 먹으며 설쳐대는 것이 보였으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윽고 무당이 불려 오고 法流寺 스님 한 분을 모셔다 병을 치료케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무당은 오히려 귀신에게 모욕을 당하고 스님은 귀신의 철퇴에 맞아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마침내는 사람을 시켜 眞本法師를 모셔오게 되었는데, 법사가 올 것이라는 말만 듣고도 귀신들은 모두 창백한 얼굴빛이 되었다. 잠시 후 사망에서 금감옷에 긴창으로 무장한 大力神이 나타나 못귀신들을 결박하고 이어서 무수한 천신들이 내려와 기다리고 있는데 眞本法師가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법사가 경전을 펴기도 전에 眞本法師의 병은 낫게 되었다.²²⁾

명량 일본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惠通은 唐나라로 유학하면서 無畏三藏²³⁾에게서 밀교를 공부하여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당시에 高宗(649~683 在位)의 공주가 병을 앓을 때 스승을 대신하여 그 병을 고치기도 하였다. 이 때 원한을 품은 귀신이 신라로 와서 많은

20) 『大正藏』21, pp.515~517, 참조.

21) 『三國遺事』2, 「文虎王法敏條」 및 同卷5, 神呪6, 「明朗神印條」.

22) 위의 책, 권5, 神呪6, 密本法師條.

23) 밀교의 善無畏三藏과는 다른 사람이다.

생명을 해치고 있다는 말을 들은 혜통은 서기 665년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뒤 혜통은 그 귀신을 찾아 不殺戒를 주어 교화하고, 신문왕(681~691 在位)의 등창과 효소왕(692~702) 공주의 병을 呪誦으로 낫게 하였다.²⁴⁾

지금까지 대략 살펴본 바와 같이, 명랑은 신인비법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봉사하였고, 밀본과 혜통은 眞言呪法으로써 개인의 병을 고치는 일에 종사하였거니와, 이들은 모두가 인도 초기밀교사상을 중국으로부터 받아 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8세기로 접어들면서 신라는 중국으로부터 다시 중기밀교 즉 『大日經』과 『金剛頂經』 계통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開元釋教錄』에 의하면, 중국에 유학온 신라 승려 明曉는 당나라 則天武侯 성력3년(AD700) 본국으로 돌아오기에 앞서, 당시 중국에 와서 번역에 종사하던 복인도 嵐波國의 李無詔에게 간청하여 『不空羂索陀羅尼經』 일부를 번역해 가지고 왔다고 하였다.²⁵⁾

이러한 사실 외에 명효에 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으나, 그가 번역해 가지고 왔다는 이 경은 『十一面觀音神呪經』을 비롯하여 『大日經』의 「住心品」과 『金剛頂經』의 五部思想 등을 계승하여 성립된 밀교경전이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명효에 의하여 신라에는 서기 700년에 처음으로 인도 중기밀교사상이 들어왔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7·8세기 신라의 밀교현황을 대략 살펴보았거니와, 신라 밀교는 개인의 治病과 국난 극복과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폭넓은 신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논자는 이 때에 명효에 의해 수용되었던 『불공견색다라니경』²⁶⁾의 교학사상을 “新羅人の 卽身成佛”²⁷⁾과 관계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신라인의 眞신성불에 『묘법연화경』²⁸⁾과 『首楞嚴經』²⁹⁾의 “증생이 佛身으로 될 수 있는 자에게는 관음보살이 곧 佛身을 나투어 說法하여 그를 해탈케 한다”는 사상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곳에서는 관음보살이 佛身을 나투어 說法하여 成佛케 하고 있지만, 저 『불공견색다라니경』에서는

관음보살이 스스로 몸을 나투어 교화하되, 여러 가지 모양을 나투어 증생을 度脫케 하노니. 성문승을 도탈키 위해서는 성문의 몸을 나투고, 연각승을 도탈키 위해서는 연각의 몸을 나투고, 보살승을 도탈키 위해서는 보살의 몸을 나투어 교화한다.³⁰⁾

24) 『三國遺事』卷5, 「惠通降龍條」.

25) 『大正藏』55, p.566b. 참조.

26) 앞의 책, 권20, pp.409b~421b.

27) 앞의 註 5) 참조.

28) 『大正藏』9, p.57a.

29) 위의 책 19, p.128b~c.

라고 한 바와 같이, 관음보살이 佛身을 나타지 않고 그 교화대상의 모습으로 身形을 나타어 직접 교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 신라인의 현신성불의 내용을 보면 관음보살이 佛身을 나타지 않고 부득과 박박이라는 두 사람을 제도하기 위하여 관음보살이 직접 낭자이긴 하지만 사람의 모습을 나타어 교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라인의 현신성불에는 명효에 의해 수용되었던 『불공견색다라니경』과 같은 밀교사상이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더욱이 이 당시에는 서기 704경 중국에서 번역되었던 『無垢淨光陀羅尼經』이 성덕왕5년(AD 706)에 세워진 신라 皇龍寺 탑에 봉안될 정도로, 중국과 신라사이에는 사상의 수용과 신앙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³¹⁾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신라인의 현신성불에는 그 당시에 수용되었던 『불공견색다라니경』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볼 바와 같이 만약 신라 두 성인 현신성불에 밀교의 『불공견색다라니경』의 사상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면, 거기에는 또한 밀교의 즉신성불사상의 영향 또는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불공견색다라니경』은 중기 불교의 중심이 되는 『대일』과 『금강정경』의 사상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V. 맺음말

평소에 『삼국유사』에 전해오는 신라의 부득과 박박이라는 두 사람이 現身成佛했던 기사를 읽으면서, 그것이 밀교의 卽身成佛思想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 신라인의 현신성불과 밀교의 즉신성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라 두 성인이 현신으로 성불했던 서기 8세기 경에는 신라밀교가 매우 구체적이고 폭넓은 신앙으로 자리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효에 의해 『불공견색다라니경』이 수용되었는데, 그 둘 사이에는 매우 유사한 내용과 사상성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때에는 중국에서 번역된 경전들이 바로 신라에 전해서 구체적 신앙의 모습으로 정착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신라인의 현신성불에는 최대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간접적이나 복합적인 조건 하에서, 밀교의 즉신성불사상이나 그 신앙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30) 위의 책, 20, pp.411b~416c, 참조.

31) 徐閔吉, 앞의 책 p.24.

Abstract

Esoteric Influence for Accomplishing Buddhahood of Present Body in Silla Dynasty

Suh, Yoon-kil *

Ordinary times I used to read contents of Attaining Buddhahood of Present body(現身成佛) by two sages, Beudeuk(夫得) and Bakbak(朴朴) in the *Historic Records of Three Countries*(三國遺事) and came to have guess that their might be any relationships between the attainment of those two sages and the Accomplishment of Immediate Body (即身成佛) of Esoteric Buddhism. So submitting this paper gave me an opportunity for me to study and compare the attainment of Present Body of Silla Buddhism and Immediate Body of Esoteric Buddhism.

As a result it was impossible to find any direct proof that the Accomplishment of Immediate Body of Esoteric Buddhism have influenced that of Present Body of Silla Buddhism. But the 8th century A.D. when the two sages of Silla have attained the Buddhahood of Present Body was an age that Esoteric Buddhism of Silla have founded its base as a remarkable and wide belief, and also was an era when the Myeonghyo(明曉) who was a monk of Esoteric Buddhism have imported a *Darani Sutra of Rope as Non Emptiness*(不空羂索陀羅尼經) that has close similarity and inclination of thought with that of Accomplishment of Present Body. Moreover it was also an era that many Buddhist Sutras and Tantras was imported from China and translated and resettled to Silla as a remarkable belief.

As a conclusion through the presumption of those circumstances stated above, it is

* Dean of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Information Dongguk University

possible to assume at least that the thought of Accomplishment of Immediate Body of Esoteric Buddhism or its belief have influenced that of Present Body of Silla Buddhism by indirect or complex condition.

● **Key Words**

attaining Buddhahood of immediate body, attaining Buddhahood of present body, Silla Buddhism, Esoteric Buddhism, *Historic Records of Three Countries* Buddhism, *Mahā-vairocana Sutra*, *Vajra-Peak Tantra Mūdra*, *Empowerment-Sutra*